

낭만 밤바다 한 눈에...여수시 야경명소 남산공원 준공

미술 전시장·잔디광장·야외무대·체육시설 등 들어서
문화체육부 공모 선정 야간관광 특화사업 추진 탄력

‘여수밤바다’의 낭만을 더할 새로운 야경 명소 ‘남산공원’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새로운 야경 명소가 탄생하면서 오는 2027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시는 최근 남산동 274번지 일원에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인 ‘남산공원’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17만4323㎡(5만2732평) 규모 남산공원에서는 여수 밤바다가 품고 있는 장군도와 돌산대교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야외 미술 전시장과 바위 공원(암석원), 미로 정원, 잔디광장 등을 갖췄다. 시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즐기고 쉴 수 있는 야외무대와 체육시설도 들어섰다. 공원 인근 2곳에는 122면 규모 주차장을 갖췄다. 공원 산책로와 습지에는 밤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억원을 들여 남산공원을 조성했다. 준공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를 듣고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했다. 한편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야간관광 특화사업을 벌인다. 여수는 국제적 야간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밤의 리듬, 여수’ (Rhythm of the Night, Yeosu)를 내걸었다. 국비 12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32억원을 투입하면서 남산공원과 국동항 수변공원, 예술의 섬 장도 등이 야간관광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여수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야간관광 브랜드인 ‘대한민국 밤밤곡곡’에도 지자체 중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기도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최근 준공한 여수시 남산동 남산공원에서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장군도와 돌산대교가 보인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전국 최초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한다

고품질 균주 안정적 생산·공급
이달중 사업자 선정 연내 마무리

광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에 나서며 농업기술 선진화에 나선다. 광양시는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와 경제성 검토를 지난해 마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사업’은 고품질 우수 균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된다. 미생물 고형화 설비를 도입하면 부피는 줄고, 유통기한은 늘고, 오염에 강한 미생물체제를 생산할 수 있다. 미생물 고형화 설비는 기존 농업용 미생물실의 액상 발효 생물공정에 연계된다. ‘농축-동결건조-분쇄-포장’의 후속 공정이 추가 설치된다. 다른 제형화 방식과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생물공정 방식이다. 광양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 제단법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제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설비 규모와 용량을 정했다. 적정 규격의 설비 납품을 위해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2단계 입찰로 정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분



광양시가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규격·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평가위원들과 적정 규격의 설비 납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야 평가위원 전문가들을 모집해 이달 12일 입찰 참가자들에 대한 규격·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마쳤다. 이달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동훈 광양시 작물환경팀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미생물 배양이 끝나면 액상 형태로 포장·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부피

가 크고 오염에 취약하며 유통기한이 짧은 단점이 있다”며 “이러한 단점이 보완된 고형 미생물 제제가 개발되면 농업인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생물 고형화 설비 구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기술보급과(061-797-355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거문도 7월 최신행 쾌속선 운항

여수-거문도항로에 오는 7월 최신행 초쾌속 여객선이 투입된다.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여수-거문도항로 여객선 운항회사로 (주)케이티마린(대표 박옥열)이 선정됐다. 이 회사는 네덜란드 다멘조선에 발주한 여객선이 최근 건조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5일 취항식을 갖고, 같은 달 중순부터 1일 2회 왕복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멜호’로 명명된 이 배는 150억원을 들여 총톤수 590t(길이 42.16m, 폭 11.3m, 깊이 3.8m)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건조됐다. 워터젯 4기를 장착해 최대 42노트(시속 약 8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정원은 승객 423명, 선원 7명이다. (주)케이티마린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해상운송과 선박 관리, 선원 관리, 선박대리점, 신조 감리 분야에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졌다. 여수-거문도 항로는 그동안 잦은 결항과 운항 편



오는 7월 중순부터 여수-거문도항로를 1일 2회 왕복 운항하는 초쾌속선 ‘하멜호’.

수 부족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신조 쾌속선 투입에 따라 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티마린 관계자는 “거문도를 비롯한 삼산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거문도·백도 등 여수지역 섬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신행 쾌속선을 신규 건조할 정도로 이 항로에 애정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멜호 취항식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유람선 부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녹동공영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고흥 녹동공영버스터미널.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녹동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의 하나로 버스·택시 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택시 승강장에는 최근 각각 길이 50m, 36m 규모의 비가림시설이 설치됐다. 녹동공영버스터미널은 고흥군이 지난 2021년 8월 매입한 지역의 유일한 직업 운송 거점이다. 하루 평균 300명 넘게 이용하고 있다. 고흥군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벌인 뒤 구조 보강과 전기시설 전면 보수, 운수 종사자 휴게실 새 단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로 우천 시 터미널 이용객과 운송 업체 기사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며 “이달 말에 민원인과 기사 전용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녹동공영버스터미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순천만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전문 상주 직원들이 국가정원 방문객 반려견을 돌보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 인기

누적 이용객 5000명 돌파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선보인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이 누적 5000명(반려견 6000마리)을 넘기며 국가정원 인기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역사관 뒷편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전국 관광지 가운데 처음 무료 운영됐다.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며 반려견 성향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1400㎡(420평) 잔디밭으로 이뤄진 실외 놀이터는 장애물 경주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실내 놀이터는 무더위에 대비해 냉방 매트와 냉

방 시설을 갖췄다. 이용 요금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최장 4시간 쓸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국가정원과 함께 휴무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에서 ‘예약 우선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현장 이용 신청도 할 수 있다. 반려견 돌봄 중에는 반려견 사진·영상을 전송하고 반려견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주기도 한다. 최영복 순천시 정원운영과 주무관은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는 관람객도 돌봄 서비스로 인해 불편 없이 정원관광을 즐기게 됐다”며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순천을 알리는 중심 역할이 되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물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 참여

곡성군은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위기가정 아동 복지를 위한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 정기후원에 참여한 임마뉴엘아트팜(대표 박경은)과 자매가(대표 최미라)에 ‘나눔 기업 헌판’을 전했다. ‘곡성사랑 아이사랑 캠페인’은 곡성군과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 위기가정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역 소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곡성물에 납품하는 110개 지역 농가 가운데 이달 현재 10곳이 정기적으로 이들 캠페인에 정기

후원하고 있다. 임마뉴엘아트팜은 곡성군 입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2.3ha 규모 온실에서 파파야, 망고, 바질 등을 재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폐열을 활용한 온실 난방 체계를 통해 연중 열대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죽곡면에 있는 자매가는 두 자매가 전통 방식 그대로 솥물에 구워 만든 수제 전통 한과를 생산하고 있다. 곡성 특산물인 토란을 이용해 유과, 김부각, 토란떡파이 등 다양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물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뒤 누적 매출 6억 8000만원을 넘겼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



곡성물에 납품하는 정재근(왼쪽) 임마뉴엘아트팜 이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로부터 ‘나눔 기업 헌판’을 받고 있다. <곡성군 제공>